

대학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 : 일 대학을 중심으로

홍성경¹ · 김지미²

^{1,2}동남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Ethical sensitivity related to college life : Focusing on one college students

Sung Kyung, Hong¹ · Ji mee, Kim²

^{1,2}Dongnam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evels of ethical sensitivity to college life in college students. **Methods** : The data was collected using questionnaires from a convenience sample of 625 college stud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F-test, Scheffe post hoc analysis. **Results** : Mean score of ethical sensitivity was 3.92. There was a difference in some ethical sensitivity items according to gender, academic grade, religion, experience of ethics education, wanted jobs, and majors. **Conclusion** :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improving ethical sensitivity in order to make ethical decisions after college gradua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s, Ethics, Sensitivity

I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사회는 기술의 혁신과 경제 환경의 세계화, 인구의 노령화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사회 변화는 기업에 있어 조직과 경영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에 따라 기업 구성원들에게는 다기능적, 상호협력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는 직업인에게는 타율적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자기관리를 통한 높은 자율성과 책임의 윤리를, 대학에는 사회 속 직업인으로서의 성장과 학습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 따라서 직업사회로의 진입 전 이러한 자율성과 책임의 윤리를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임이 대학교육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대학교육의 본연의 목적이 순수한 학문탐구와 함께 미래의 지식, 기술의 습득 및 교양교육을 통한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 양성임은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

나 대학의 현실은 대학이 가진 교육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취업률 향상에 더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 양성보다는 직업인 양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일부에만 집중된 현실로 인해 재학 중인 학생들은 사회 진입 성공을 위한 목표만을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정의 타당성과 정당성보다는 취업을 위한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추가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서는 남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정직하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통한 성취보다 타인의 학문적, 학업적 성취를 자신의 것인 양 포장하고 속여 결과만을 취하는 행동을 쉽게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2-4].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성 함양이라는 목표의 성취가 매우 어려움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한 공감의 법 제정이라는 방법을 동원하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5].

윤리적 민감성은 실제 상황에서 윤리적 차원을 고려하거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6]으로 도덕발달과정의 중요한 독립적 요소이다. 도덕적 상상력과 윤리적 상황의 인식능력을 포함하는 능력인 윤리적 민감성은 실제 윤리적 문제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를 윤리적 측면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말한다[7,8]. 윤리적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사결정 모델 중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모델이 Rest의 4구성모델이다[9]. Rest의 이 모델은 그동안 도덕 판단이나 도덕 정서, 도덕 행동과 같은 측면에서 각기 다루었던 도덕발달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을 어느 한 측면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한 모델이다[10]. 이 모델의 구성요소에는 윤리적 민감성, 도덕 판단, 도덕 동기, 도덕 행동이 포함 된다. 이 모델에 의하면 윤리적 민감성을 통해 특정 상황 속에서 내포된 도덕적 윤리적 이유들을 지각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6,7]. 따라서 윤리적 민감성을 갖추는 것은 인성의 함양과 더불어

사회의 다양한 조직 내 구성원들 속에서 자율적인 책임이 따르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리적 민감성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을 확인한 연구는 행정학, 경영학, 생화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전공분야 및 장래 희망 직업분야에 따른 대학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 차이를 확인한 국내 연구[6]와 회계학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국외 연구[11]가 있을 뿐이다. 그 외 윤리적 민감성 관련 대학생 대상 연구들은 간호사나 의료 분야에서 개발된 도구를 수정하여 간호대학생과 의과대학생에게 적용한 연구들[12-14]과 사례 상황을 활용한 비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한 연구[15]가 있다. 한편 직업을 가진 대상의 윤리적 민감성 연구는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 확인을 위해 개발된 도구를 이용하여 정신간호사, 요양병원 간호사, 특수체육전공자, 예비 장애인스포츠지도사에게 적용한 연구들이 있다[16-19].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대학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민감성 도구가 아닌, 전문직업 분야에서 개발된 설문이나 사례 상황을 활용한 비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성과 건전한 상식을 갖춘 사회인 양성이라는 대학교육의 목표 실현을 위해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을 전문 직업 분야에서 필요한 윤리적 민감성이 아닌 대학생활과 관련한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윤리적 민감성이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성찰을 통해 향상될 수 있으며[20], 도덕적 문제와 관련된 노출과 경험을 통해 습득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교육을 통한 윤리적 민감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사회 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결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직업 사회로의 진입 전 대학생활 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첫 단계로써의 윤리적 민감성 수준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졸업 후 사회생활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는 윤리적 태도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대학생의 대학생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윤리적민감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윤리적민감성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윤리적 민감성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는 K도 S시에 위치한 일 대학 재학생 중 일부 학생을 계열별로 편의 추출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는 일반적 특성 집단의 평균비교를 목적으로 효과크기 .4,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로 G-Power 3.13을 이용하여 계산할 결과, 한 집단에 100명씩 대학의 4개 계열별로 최소 400명이 필요하므로 실제 조사된 분석대상 수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연구 도구

윤리적 민감성은 도덕적 상상과 윤리적 이슈의 인식이라는 두 가지 능력의 조합으로[8] 도덕적 상상은 어떤 상황의 도덕적 측면에 따라 취하는 행동의 도덕적 결과를 예견하는 것을 말하며, 도덕적 관점을 지각

하는 능력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개발된 시험, 조별 프로젝트, 과제 등과 관련하여 구조화 시킨 도구[11]를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4개 문항을 원 도구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항 9개를 추가하여 번역, 사용한 도구[6]를 메일로 사용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였다. Ameen[11]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는 23문항이었으며, 수정 보완한 도구의 총 문항은 28개로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94였다.

4. 자료 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기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No.2016-0415-004)을 받았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K도 S시에 위치한 일 대학의 재학생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목적, 방법, 연구 참여 중 중도탈락의 자율성, 설문작성 시 불편감, 연구참여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 개인정보 수집과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상자로부터 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총 636부였고 이 중 불충분한 응답자료 11부를 제외하여 최종 62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대상자의 윤리적 민감성은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는 t-test 혹은 F-test와 Scheffe 사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이 모든 통계처리는 PASW Statistics 18.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78.2%), 1학년과 2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고(65.8%), 윤리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62.7%). 대상자의 전공은 보건계열과 간호계열 학생들이 각각 201명(32.2%)과 246명(39.4%)으로 사회실무계열과 가정계열 대상자 보다 많았다(Table 1).

2. 성별, 학년, 종교, 윤리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정도

윤리적 민감성 항목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92점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민감성을 묻는 항목 중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를 전반적으로 ‘심각하다’로 볼 수 있는 4점(5점 만점)을 넘는 항목은 모두 12항목이었으며, 가장 높은 윤리적 민감성을 나타낸 항목은 ‘시험 보는 동안 부정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제공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로 4.80점(5점 만점)을 나타냈다. 윤리적

민감성을 묻는 항목 중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로 볼 수 있는 3점(5점 만점) 이하 항목은 모두 2개 항목이었으며, 이 중 ‘시험성적 채점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추측만으로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행위’가 가장 낮은 2.64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p < .05$) 항목은 모두 13개 항목이었으며, 이들 중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시험성적 채점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추측만으로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행위’와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하여 공부하는 행위’의 2개 항목이었다. 학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모두 9개 항목이며($p < .05$), 이들 중 유의수준 .001 이하에서 학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행위’로 저학년(1~2학년)이 고학년(3~4학년)보다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종교 유무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는 종교를 가지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 625)

Category		N	%
Gender	M	136	21.8
	F	489	78.2
Academic grade	1~2	411	65.8
	3~4	214	34.2
Religion	Yes	255	40.8
	No	370	59.2
Experience of ethic education	Yes	392	62.7
	No	233	37.3
Wanted jobs	Public	390	62.4
	Private	235	37.6
Major	Division of health sciences	201	32.2
	Division of social sciences	91	14.6
	Division of nursing	246	39.4
	Division of home economics	87	13.9

Table 2. Ethical sensitivity in subjects

(N=625)

	Item	Mean	SD
1	Bribing or blackmailing a fellow student or a professor to provide unauthorized assistance.	4.80	0.53
2	Obtaining a copy of the exam prior to taking it in class.	4.68	0.69
3	Asking someone for the answers during an exam.	4.67	0.64
4	Looking at another student's exam paper during tests.	4.63	0.65
5	Exchanging papers during an exam.	4.61	0.68
6	Using unauthorized "crib" notes during an exam.	4.61	0.66
7	Not contributing one's fair share in a group project for which all the members will be given the same grade.	4.40	0.75
8	Smoking in non-smoking areas (e.g. restrooms)	4.34	0.84
9	Tearing only the necessary parts of a book that you borrowed.	4.32	0.83
10	Copying homework from another student.	4.31	0.80
11	Turning in work or a paper purchased from a fellow students or a commercial research firm.	4.13	0.91
12	Having someone else write a speech, report, or paper for you after you have done the basic research.	4.07	0.85
13	Obtaining an old test from a fraternity/sorority file or from a student who took the class in a previous semester when the professor has expressly prohibited the release of old tests.	3.93	0.92
14	Rephrasing words or ideas from a book, journal, or magazine and presenting them without giving their source.	3.93	0.86
15	Talking louder enough to disturb the classroom near the classroom.	3.87	0.88
16	Asking a friend to take a virtual lecture exam.	3.83	0.97
17	Writing a speech, report, paper, etc., for someone else.	3.83	0.94
18	Not attending school with a plea of camouflage employment.	3.81	0.99
19	Studying from someone else's notes without their approval.	3.72	0.79
20	Lying to an instructor about illness, etc., when an exam or assignment is due.	3.62	0.97
21	Attending in class instead for a friend.	3.60	0.99
22	Checking attendance and just leaving.	3.53	1.03
23	Copying a copy of a textbook available at a bookstore for reasons of low price.	3.41	1.14
24	Not attending classes due to MT without having MT in a situation where the MT is permitted.	3.29	1.00
25	Being absent from school with a feigned illness.	3.28	1.07
26	Studying the examinations of other classes during class time.	3.05	0.99
27	Sending text to a cell phone during class.	2.89	1.08
28	Visiting a professor after an exam with the sole intention of biasing one's exam grade.	2.64	0.90
	Total	3.92	0.53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윤리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윤리관련 교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 윤리적 민감성은 윤리관련 교과목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높았으며,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모두 4개였다(Table 3).

3. 취업 희망분야와 전공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정도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경우가 민간기관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윤리적 민감성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은 5개 항목으로 5개 항목 모두

Table 3. Ethical sensitivity by Gender, Academic Grade, Religion, & Experience of Ethic Education

(N=625)

Item No.	Gender		Academic grade				Religion			Experience of ethic education		
	M (n=136)	F (n=489)		1~2 (n=411)	3~4 (n=214)	<i>p</i>	Yes (n=255)	No (n=370)	<i>p</i>	Yes (n=392)	No (n=233)	<i>p</i>
1	4.68	4.83	.003	4.81	4.76	ns	4.78	4.81	ns	4.78	4.83	ns
2	4.50	4.74	<.001	4.69	4.68	ns	4.67	4.70	ns	4.65	4.74	ns
3	4.56	4.70	.020	4.71	4.60	ns	4.70	4.65	ns	4.65	4.71	ns
4	4.50	4.66	.010	4.64	4.59	ns	4.62	4.63	ns	4.60	4.67	ns
5	4.48	4.64	.011	4.64	4.56	ns	4.58	4.62	ns	4.58	4.65	ns
6	4.49	4.64	.015	4.63	4.56	ns	4.61	4.60	ns	4.57	4.66	ns
7	4.29	4.43	ns	4.45	4.29	.012	4.41	4.39	ns	4.32	4.53	.001
8	4.24	4.37	ns	4.38	4.26	ns	4.36	4.32	ns	4.35	4.32	ns
9	4.30	4.32	ns	4.36	4.24	ns	4.34	4.30	ns	4.29	4.37	ns
10	4.18	4.34	.031	4.36	4.21	.037	4.33	4.29	ns	4.27	4.38	ns
11	4.19	4.11	ns	4.25	3.91	<.001	4.18	4.10	ns	4.05	4.26	.007
12	4.05	4.08	ns	4.13	3.96	.019	4.17	4.01	.021	4.03	4.14	ns
13	3.96	3.93	ns	3.97	3.86	ns	3.96	3.91	ns	3.90	4.00	ns
14	3.96	3.92	ns	3.97	3.86	ns	3.92	3.94	ns	3.91	3.97	ns
15	3.91	3.86	ns	3.94	3.72	.003	3.94	3.82	ns	3.79	4.00	.005
16	3.87	3.82	ns	3.89	3.71	.026	3.89	3.79	ns	3.82	3.85	ns
17	3.85	3.82	ns	3.92	3.66	.001	3.88	3.79	ns	3.79	3.90	ns
18	3.87	3.79	ns	3.86	3.71	ns	3.90	3.75	ns	3.79	3.85	ns
19	3.57	3.76	.015	3.73	3.69	ns	3.75	3.70	ns	3.68	3.79	ns
20	3.76	3.58	ns	3.67	3.51	ns	3.66	3.59	ns	3.59	3.66	ns
21	3.79	3.55	.012	3.64	3.51	ns	3.71	3.52	.024	3.55	3.68	ns
22	3.54	3.53	ns	3.59	3.42	ns	3.64	3.45	.027	3.48	3.61	ns
23	3.51	3.38	ns	3.44	3.35	ns	3.47	3.37	ns	3.43	3.39	ns
24	3.51	3.23	.004	3.39	3.10	.001	3.34	3.26	ns	3.23	3.39	ns
25	3.43	3.23	ns	3.36	3.12	.007	3.38	3.20	.036	3.22	3.36	ns
26	3.29	2.98	.001	3.09	2.97	ns	3.06	3.04	ns	3.00	3.12	ns
27	3.09	2.83	.016	2.95	2.77	ns	2.93	2.86	ns	2.81	3.02	.019
28	2.90	2.56	<.001	2.67	2.58	ns	2.62	2.65	ns	2.64	2.64	ns
Total	3.94	3.92		3.97	3.83		3.96	3.90		3.88	3.98	

Item No. : Ethical sensitivity item No. ns : non significant value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윤리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4개의 전공 계열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사회계열 전공 대상이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전공 분야의 대상도 모두 평균 3.80점을 넘었다. 전공 계열에 따라 윤리적 민감성에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모두 14개 항목이며, 이들 중 ‘수업시간에 다른 수업의 시

험공부를 하는 행위’ 1개 항목을 제외한 13개 항목이 모두 사회계열 전공 대상이 다른 전공 계열 대상보다 윤리적 민감성이 높았으며 전공분야에 따른 차이 중 통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p < .001$)은 13개 항목 중 ‘시험을 보기 전에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하여 공부하는 행위’였다(Table 4).

Table 4. Ethical sensitivity by Wanted jobs, Major

(N=625)

Item No.	Wanted jobs			Major				p	Scheffe
	Public (n=390)	Private (n=235)	p	DHS (n=201)	DSS (n=91)	DN (n=246)	DHE (n=87)		
1	4.78	4.82	ns	4.69	4.90	4.83	4.85	.003	DSS > DHS
2	4.68	4.69	ns	4.54	4.91	4.67	4.82	<.001	DSS, DHE > DHS DSS > DHS, DN
3	4.66	4.69	ns	4.56	4.84	4.70	4.68	.005	DSS > DHS
4	4.64	4.60	ns	4.53	4.81	4.64	4.62	.008	DSS > DHS
5	4.61	4.61	ns	4.50	4.77	4.65	4.55	.008	DSS > DHS
6	4.61	4.61	ns	4.49	4.81	4.61	4.63	.002	DSS > DHS
7	4.41	4.37	ns	4.33	4.64	4.40	4.31	.007	DSS > DHS, DHE
8	4.30	4.41	ns	4.31	4.30	4.43	4.22	ns	
9	4.27	4.40	ns	4.24	4.38	4.35	4.33	ns	
10	4.29	4.33	ns	4.15	4.53	4.35	4.30	.002	DSS > DHS
11	4.21	4.00	.004	4.20	4.37	3.99	4.09	.003	DSS > DN
12	4.12	3.99	ns	4.11	4.25	3.99	4.03	ns	
13	3.97	3.87	ns	3.90	4.25	3.86	3.89	.004	DSS > DHS, DN
14	3.93	3.93	ns	3.96	4.00	3.91	3.85	ns	
15	3.92	3.78	ns	3.89	4.09	3.77	3.87	.034	DSS > DN
16	3.84	3.81	ns	3.81	3.88	3.85	3.79	ns	
17	3.86	3.77	ns	3.79	4.04	3.79	3.80	ns	
18	3.81	3.81	ns	3.81	3.96	3.77	3.77	ns	
19	3.78	3.62	.016	3.63	3.91	3.75	3.63	.025	DSS > DHS
20	3.66	3.55	ns	3.69	3.64	3.57	3.56	ns	
21	3.62	3.57	ns	3.59	3.70	3.59	3.55	ns	
22	3.62	3.39	.007	3.55	3.74	3.46	3.48	ns	
23	3.45	3.35	ns	3.30	3.49	3.54	3.22	ns	
24	3.37	3.16	.011	3.30	3.51	3.24	3.21	ns	
25	3.34	3.18	ns	3.29	3.46	3.24	3.16	ns	
26	3.11	2.95	ns	3.22	3.01	2.94	2.97	.020	DHS > DN
27	2.99	2.71	.002	3.00	3.08	2.74	2.86	.022	
28	2.63	2.65	ns	2.73	2.60	2.58	2.61	ns	
Total	3.95	3.88		3.90	4.07	3.90	3.88		

DHS : Division of health sciences

DSS : Division of social sciences

DN : Division of nursing

DHE : Division of home economics

ns : non significant value

IV.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정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향후 사회생활 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을 이끌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학생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 수준은 2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이 평균 3.0 보다 높아 최소한 ‘어느 정도 심

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에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국외의 연구[11]에서 윤리적 민감성을 모두 23개 항목으로 측정하여 이들 중 9개 항목이 평균값 3.0점이 안되었던 결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민감성을 확인한 Choi 등[6]의 국내 연구에서 모든 항목이 평균 3.0을 넘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6]와 본 연구결과가 유사한 측면은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과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시험에 부정적이고 비윤리적인 도움을 청하는 것에 윤리적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성적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 결과에 따른 평가를 이의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윤리적 민감성 항목에서 심각성을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았을 때 6위까지의 항목이 모두 시험과 관련된 항목이었다. 이는 국내 선행연구[6]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대학생활관련 이슈들 가운데 가장 민감한 영역이 시험과 관련된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험에 민감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아직까지 기업 측면에서 지원자의 성적을 평가 기준에 있어 비교 가능한 정량적 수치로 인식하고 있음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평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그러나 윤리적 민감성의 세부 항목에서는 28개 항목 중 남학생이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았던 항목이 5항목, 여학생이 높았던 항목이 8항목으로 나타났다($p < .05$). 항목 수로만 비교하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았던 항목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별과 관련하여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윤리적 민감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도 있으며[11], 성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6]와 남녀의 행태 차이가 성사회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21]도 있다. 따라서 성 차이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차이를 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우므로 향후 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분명한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년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의 평균은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9개 항목 모두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의과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은 저학년이 가장 낮고, 중간 학년이 가장 높았다고 고학년에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14]와 사회복지학 전공생의 경우 3학년보다 4학년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이 높으며[15],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도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22]와는 다른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 교육 이전의 대상에게 시도한 연구이기는 하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인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보고한 연구[23]와 대학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학업부정행위 중 시험 부정이 높았다는 연구[2]도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가 다른 결과는 보이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가 대부분 전공분야의 직업과 관련된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와 엄밀하게 비교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속적 연구를 통해 일관된 차이를 나타내는 패턴의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히려 어리고 사회 경험이 적은 대상이 윤리적 민감성이 높다가 연령 증가와 교육적 노력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진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일 대학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기에 제한된 측면이 있으나, 고려해 볼 수 있는 측면은 학교 교육을 통한 성숙이 오히려 윤리적 민감성을 높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의 측면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학령이 높아질수록 타인과의 협력보다는 개인이 타인보다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인해 주

고 있으며, 윤리와 도덕 교육조차 도덕적, 윤리적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지식획득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24]. 이 같은 측면은 대학 내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관용이 대학생의 도덕발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점 또한 원칙주의에 따른 윤리 풍토 인식이라는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8,25]. 따라서 어렵고 힘든 선한 수단 이외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민감성이 낮게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윤리 관련 과목 수강여부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차이는 4개의 항목에서 윤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윤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보다 윤리적 심각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이가 나타난 4개의 항목은 모두 타인의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들이었다. 이는 국외와 국내의 다른 연구[7,15,18,26]에서 윤리강의가 윤리적 민감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가 제한된 일 대학의 서로 다른 전공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즉 각 전공 영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윤리교과 교육의 목적이 전공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직업 관련 윤리적 소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실 예로 간호계열에서의 윤리교과목을 살펴보면 간호전문직관에 필요한 윤리학적 지식과 전문직 윤리강령의 의미 등으로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공분야에서 교육하고 있는 윤리교육이 대학생생활관련 이슈의 윤리적 민감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 생활 내에서 윤리적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윤리 관련 교육은 전공 관련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윤리교육과 더불어 대학생생활 전반에 걸쳐 대학 사회 내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풍토 조성을 경험하게 하여 향후 직업사회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7,15].

취업 희망 분야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을 희망한 경우가 민간기관을 희망한 경우보다 윤리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내의 선행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6], 이러한 결과는 민간기관에 비해 공공기관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입장이 크기 때문에 윤리적 민감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분야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은 4개 전공계열 모두 3.80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내어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리적 민감성의 28개 항목 중 13항목에서 사회계열 전공 학생들이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계열 학생은 모두 유아교육 전공 학생들로 향후 교사가 될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같이 전공분야에 따라 윤리적 민감성이 차이가 있음을 보고[6,21,27]하고 있으나, 이들 중 하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학생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윤리적 민감성 도구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생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민감성에 초점을 맞춘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연구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며, 다양한 전공분야와 연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생활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대학생의 윤리적 민감성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생활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초를 세우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 대학생의 대학생생활관련 이슈에 대한 윤리적 민감성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시험과 관련된 상황이었으며, 윤리적 민감성은 성별의 평균에서는 남학생이 높았으나 항목 간 차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윤리적 민감성이 높았

던 항목이 혼재되어 있으며, 학년이 낮고, 종교가 있으며, 윤리관련 교과목을 이수 하지 않았고,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며, 사회계열 전공 대학생에게서 윤리적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직업 사회로 진입하기 전 대학생들에게 향후 직업 사회 내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의 첫 단계인 윤리적 민감성을 대학생활 관련하여 확인했던 것이 의미가 있다. 한편 제한적인 측면은 일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전문직 관련 분야에서 사용된 윤리적 민감성 도구와는 달리 대학생활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한 윤리적 민감성을 측정해 봄으로써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사회생활 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게 하는 교육적 기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활 관련 윤리적 민감성의 연구결과가 축적되어 대학 교육에 있어 윤리교육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일반화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대학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학년이 낮을수록, 윤리과목 이수 경험 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윤리적 민감성 정도가 높은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Lee SC. A view on the change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new occupational ethics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2003;54:209-238.
2. Kim DG. A study on studying ethics and research ethics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016;28:157-176.
3. Lee OH. Relationship of antisociality and cheating behavior of undergraduates by their sex, grade and majo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9;16(8): 1-25.
4. Kim D. There is no morality in front of score-Cheating du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et]. Seoul : Segye; 2014[cited 2014 June 10]. Available from: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0002576>
5. Personality Education Promotion Act. Available from: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237>
6. Choi DL, Cho YS. A Study on ethical sensitivity: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Korean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Review*. 2011;10(2):61-84.
7. Clarkeburn H. A test for ethical sensitivity in sci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02;31(4): 439-453.
8. Callahan D. Goals in the teaching of ethics, in Callahan, D. (ed). *Ethics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Plenum; 1980. p.61-80.
9. Rest JR. Morality edited by Mussen PH, Flavell JH, Markman EM.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New York: Wiley; 1983. p.556-629.
10. Suh MO. Perspectives of moral development based on the FCM.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2005; 53(2):159-182.
11. Ameen EC, Guffey DM, McMillan JJ. Gender differences in determining the ethical sensitivity of future accounting professional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96;15(3):591-597.
12. Kim MS.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2015;21(3): 382-392.

13. Kim EA, Park H, Choi SE. The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Korean J Med Ethics*. 2014;17(2):144-158.
14. Lee JH, Moon YL, Kim JY, Son HJ, Hong KP. A study of comparison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reasoning in medical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06;18(1):41-53.
15. Choi MM. The Present and Effects of Korean Social Work Ethic Education-Focused on Ethical Sensitiv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009;61(4):381-402.
16. Jo HK. Moral sensitivity, empathy and ethical climate of nurses working in psychiatric ward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14. p.1-88.
17. Chang HY, Song JE, Kim YS, You MA. Moral Sensitivity, attitude, and nursing practices for older people among nurses in long term care hospitals. *Korean J Med Ethics*. 2013;16(2):216-230.
18. Lee WS, Kim J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thical sensibility of adapted physical education major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12;20(1):1-13.
19. Beak SY, Park BD. The study on the ethical sensitivity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vocational ethics for the prospective adapted sport instructors. *Korean Journal of Adapted Physical Activity*. 2016;24(4): 23-32.
20. Kwon I.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ethics education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2006;19(1):60-72.
21. Landry R. Jr. Moyes GD, Cortes AC. Ethical perceptions among hispanic students: differences by mahor and gender.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2004;80(2):102-108.
22. Han SS, Kim YS, Park JH, Ahn SH, Meng KH, Kim JH. A study of the moral sensitivity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in Korea. *Korean J Med Ethics*. 2007;10(2):117-124.
23. Jeon J, Hong SH. A study on measuring morality in adolescents based on the four component model.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2014;33:83-110.
24. Han SW. Moral education and moral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1997;24(2):221-231.
25. Glick SM. Cheating at medical school: Schools need a culture that simply makes dishonest behaviour unacceptable. *BMJ*. 2001;322(3):250-251.
26. Ju SJ, Cho SS. A study on the effects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ethical characteristics on ethical sensitiv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12;14(1):21-40.
27. Knott TM, Lopez TB, Mesak HI. Ethical judgments of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2000;75(3):158-163.